

공동브랜드제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청사진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주)해성 L&M 장기원 사장

해성L&M 장기원 사장. 장사장은 업계난립과 극심한 가격경쟁 속에서 제대로 만든 제품이 대접받지 못하는 조명업계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동브랜드제를 제시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이 발명특허와 EM, NT마크를 획득해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지만 이미 건전한 상행위 질서가 무너진 안정기 시장에서 느낀 것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10여년 동안 등기구 및 안정기업계를 굳건히 지켜온 해성 L&M의 장기원 사장은 업계난립과 극심한 가격경쟁 속에서 제대로 만든 제품이 대접받지 못하는 조명업계의 현실을 개탄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자파 발생과 같은 유해성 측면을 감추며 저질제품을 양산하는 업체들의 혼탁한 기업윤리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그가 이러한 현상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공동브랜드제. 공동브랜드제는 한 업종에서 여러 업체가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탈피해 몇가지 공동모형을 만든 후 이를 업체에서 브랜드별로 공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무대로 각 업체마다 제조한 양만큼 영업활동을 펼치는 것. 업체들이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 관리, 영업 등에 투자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제조원가를 50%까지 줄이는 이점이 있다. 생산라인 검증이나 신제품 연구투자 등의 업무도 협회나 조합같은 단체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장사장이 고마크협의회 결성 초창기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에선 벌써 많은 산업분야에 공동브랜드제가 보편화되어있는 걸 보고 국내 도입을 제안한 것.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대만의 제품들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곳곳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장사장은 설명했다.

공동브랜드제 국내 도입제안 가격경쟁력 갖춰 세계시장으로의 도약 가능

이에 대해 한전측에서는 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전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이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상황에선 긍정적인

공동브랜드제는 업체들이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 관리, 영업 등에 투자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제조원가를 50%까지 줄이는 이점이 있다. 생산라인 검증이나 신제품 연구투자 등의 업무도 협의체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원 사장은 더불어 변별력이 부족한 고마크제도보다는 품질등급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고마크 제품이라도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안정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나 공사업자들이 그 차이를 식별할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에 따라 등급과 가격을 조정해 표시함으로써 이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자는 게 그의 견해다.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명감 갖고 임해야...

에너지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ESCO사업취지에 공감한 장기원 사장은 지난해 ESCO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 조명분야의 ESCO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지금 급성장한 이 사업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만든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장사장은 거듭 강조했다.

누구보다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ESCO들이 값싼 저질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기업은 정직해야 합니다. ESCO가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현재의 위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장사장은 ESCO협회가 솔선수범해 올바른 사업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특별회원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써줄 것을 희망했다.

전자식 안정기와 등기구를 전문 생산해오면



직원들에게 항상 품질관리의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장사장은 자사 제품에 대해 단 1%의 불량품도 불허한다.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서 조명업계에서 입지를 굳힌 혜성 L&M은 올해 초 미디어사업에도 진출했다. 장기원 사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시작한 이 사업은 최신 장비를 바탕으로 형상 및 명함 CD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낸다.

직원들에게 항상 품질관리의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장사장은 자사 제품에 대해 단 1%의 불량품도 불허한다.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안정기의 경우 자체기술로 개발한 preheating soft start 방식의 회로를 채택해 충분한 예열을 거친 후 점등되기 때문에 램프의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EM, NT마크 등을 획득, 이미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타사 제품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제품임을 내세워 안정기시장에서 승부한다.

혜성L&M은 요즘 센서등과 T5안정기 분야의 연구를 진행중이다.

장기원 사장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하면서 공동판매가 가능해진다면 그동안 축적해왔던 기술을 모두 제공할 생각이다.

공동브랜드제는 그가 바라는 조명산업의 변명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청사진(靑寫眞)이기 때문이다.